

전남 서부권



정순남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안병호 함평군수, 공사관계자들이 지난 6일 열린 함평군 해보 농공단지 기공식에서 시삽을 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189억 투입 함평 해보농공단지 첫 삽

내년 6월 조성...일자리 1000명·내년 7월까지 분양 완료

함평군이 해보면 일원에 24만5430㎡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한다. 함평군은 지난 6일 정순남 전남도 경제부지사, 안병호 함평군수를 비롯해 공사관계자와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보 농공단지 기공식을 가졌다. 해보 농공단지는 189억2100만원을 투입해 해보면 용산리 일대에 ▲산업시설 용지 17만3429㎡ ▲지원시설 용지 1788㎡ ▲공공시설 용지 5만 1878㎡ ▲녹지용지 1만 8335㎡ 등 24만

5430㎡ 규모로 내년 6월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새로 조성되는 해보 농공단지는 지난 1992년 조성된 장년 농공단지 이후 21년만에 들어서는 농공단지로서 기존의 확고·함평농공단지 2곳보다 규모면에서나 고용창출 면에서 뛰어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5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적합하다는 심사를 받고 기본계획 수립,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 등 업무를 적극 추진해 왔다. 또 지난 8

월 단지의 조기조성 분양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함평 에코플렉스(주)를 선정했다. 민간사업자는 사업비 89억6600만원을 선(先)투자해 단지조성과 분양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분양 수입금으로 별도 정산하기로 하고 착공에 들어간다. 또한 사업 착공 직후 농공단지 선 분양계획 공고를 실시해 내년 7월까지 입주분양을 마칠 계획이다. 군은 해보 농공단지가 준공되면 식료품·비급속 광물제조업·금속가공



업 관련 35개 업체가 입주해 96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효과 138억원 등 주민소득 증대, 지역 산업 구조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전남 천일염을 알린다” 소금박람회 10~12일 서울코엑스

천일염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외 소비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2012 소금박람회’가 10~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천일염의 세계화! 건강한 소금 섭취로 부터’를 주제로 열리는 이

번 박람회는 각종 천일염 제품 전시와 심포지엄, 수출 및 구매 상담, 소금 체험관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소금 박람회는 그동안 광주·전남 지역에서 개최했으나 이번에는 서울 등 수도

권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장소를 옮겼다. 박람회는 홍보관·체험관·시식관·기업관·상담관 등이 운영되며, 국산 천일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세계 11개국 30여명의 해외 바이어

도 초청했다. 홍보관에서는 천일염의 우수성과 소금산업 진흥과정, 생산 과정과 천일염의 활용 범위, 세계 유명소금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박람회 기간 천일염의 세계화·명품화로 수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천일염 수출협의회’ 창립총회도 열린다. 국내 천일염 생산 18개 기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전주시 대형마트 영업제한 재개

23일부터 둘째·넷째 일요일

전주시가 오는 23일부터 대형마트인 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제한을 재개한다. 이는 시의회에서 조례를 재개정함에 따라 재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일수와 시간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전주시의회는 법원이 2차례

에 걸쳐 조례의 내용을 문체 삼아 영업제한을 취소하도록 판결하자 지난 달 조례를 재개정했다. 재 개정된 조례에서 전주시의회는 문제가 됐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지정에 대한 규정 자체를 삭제했다. 전주시는 의무휴업일을 종전과 같이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로 정하고, 대형마트의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밟아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에 천문우주기상과학센터 만든다

시·기상대 내년 예산 43억 확보...행정절차 진행

정읍시와 기상청 정읍기상대가 천문우주기상과학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천문우주기상과학센터는 상평동 산 15-10번지 일대에 연면적 1700㎡ 규모 기상대 청사와 함께 천문우주기상과학 체험 전시시설 등을 갖춘다. 시와 기상대는 내년 예산 43억원을 확보했으며, 건립부지 국공유지 교환

과 함께 도시계획시설결정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센터가 건립되면 상해한 지역기상 서비스를 통해 단풍관광이나 농업에 필요한 기상정보 제공 등이 가능해져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s

“장류 미생물 먹인 돼지고기 부드럽고 담백해요”

순창군 한돈협회 시식행사

순창군이 장류 미생물(EM·고초균)을 먹인 돼지고기를 선보였다. 순창군 한돈협회(회장 박영선)는 지난 7일 순창 EM(유용미생물)공장 에서 황숙주 군수와 최영일 의장, 군 의회 의원, 축산인 등 100여명을 초청해 장류미생물 먹인 돼지고기 시식행사를 가졌다. 그동안 군과 한돈협회는 메추에서 추출한 고초균(바실러스)을 가족에게 먹여 순창만의 차별화된 명품 축

산물 생산을 위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돼지 255마리 대상으로 시험사육을 해왔다. 최근 시험사육 돼지를 도내 도축장에 출하한 결과 고초균과 EM균을 혼합해 먹인 시험군의 AB등급 출현율이 68.66%로 가장 높았다. 순창군 관계자는 “시식 결과 고초균과 EM균을 함께 먹인 돼지고기의 육질이 가장 부드럽고, 돼지 특유의 냄새도 없이 고소하고 담백하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바다가 육지로 변한 새만금지구, 누구 땅?

“해상경계로 행정구역 구분은 불합리”

부경대 차철표 교수 “군산·김제·부안 공평 배분을”

바다가 육지로 변한 여의도 면적 140배에 달하는 새만금지구(4만100ha)의 거대한 땅은 어느 지자체 것인가? 새만금방조제 내측의 간척지 관할 구역을 놓고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신쟁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간 관할구역을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경대 차철표(수해양산업 교육과) 교수는 최근 부안에서 열린 새만금 행정구역 관련 연구 발표회에서 “해상경계선으로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

장했다. 차 교수는 해상경계선은 지형도가 발행될 때마다 변동돼 육지의 행정구역도 명목상이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새만금지구의 행정구역 분쟁 원인인 미비한 국내 법규 정비 및 행정구역 결정 방안이 필요하다”며 “간척지의 소유권은 해상경계선, 역사상, 생활권, 해안선의 길이, 육지 경계선, 지역 경제 파급성 등을 종합

적으로 따져 이들 3개 지자체가 상생하도록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차 교수는 “간척으로 바다 및 해안을 잃은 지역의 경제침체 가속화, 성장동력 상실 등에 대한 보상이 행정구역 결정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제시와 부안군은 매립으로 새만금지구의 바다가 육지로 변하는 만큼 해상경계선이 아닌 새로운 행정 경계 기준이 필요하며, 방조제 33km도 군산시·부안군·김제시가 각각 11km씩 똑같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블랙푸드” 흑돼지 만져볼래요

남원지역 유치원생들이 지난 7~9일 운봉읍 지리산 허브밸리 일원에서 열린 ‘허브&블랙푸드 페스티벌’ 행사장을 찾아 흑돼지를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kwangju.co.kr

7년 지지부진 목포 도축장 이전 또 원점으로

대양동 이전 마무리단계서 주민 반대로 무산

지난 2005년부터 7년여를 끌어온 목포 도축장 이전작업이 이전부지 인근 주민 반대로 무산돼 원점으로 돌아왔다. 목포시는 지난 4월 석현동의 도축장을 대양동으로 이전하기로 업체 측과 협약을 체결했다. 시가 도축장 터·건물 매입비·휴업

보상비 등 41억 원을 지원하고, 업체는 오는 2014년까지 대양동으로 이전한 무안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최근 이전을 포기했다. 이 도축장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어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곳에서는 소, 돼지 등을

하루 230여 마리 도축하고 있다. 시는 업체에 민원 발생 우려가 없지는 부지 2~3곳을 물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협약 체결로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서 이전 지역 주민 반대로 수포가 됐다”면서 “민원 없는 이전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해안침식 공동 대처 업무협약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박용규)는 지난 7일 SBB, ㈜한국바스프, 해양수산정책기술연구소 등과 국립공원내 해안침식지역 공동 대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취지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환경 변화에 공동 대처하고 국립공원 내 해안침식지역 복원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콘크리트와 아스콘의 장점에 최고의 투수성까지 갖춘 ‘바이오 코스트(Bio Coast)’를 해안제방에 설치하기로 했다. 바이오 코스트는 독일 BASF사의 기술지원을 토대로 SBB(주)에서 출시한 친환경 제품이다.



서부사무소는 해양수산 정책기술연구소와 합동으로 설치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립공원 내 해안침식지역에 대한 연구기반 마련과 복원대안을 모색하는 등 연안환경 변화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박용규 서부사무소장은 “바이오 코스트 공법이 진도군 가계해변에 설치돼 해안침식 방지 효과가 입증된 만큼 국립공원 내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목포 향민청, 부두내 쓰레기 무단투기 강력 단속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이 부두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목포 향민청은 그동안 부두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계도를 실시했지

만 근절되지 않아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북한과 동명동 물양장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고 버려져 방치된 쓰레기에 대해

서는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 향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그들 작업 후 버려진 폐그물 방지 등이 없도록 강력히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전 북

단 신

전주시, 농촌 소득금고 융자금 신청기간 연장

전주시는 잇따른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돕기 위해 7월 마감인 농촌 소득금고 융자금 신청기간을 20일까지로 연장했다. 융자금 지원한도는 농업인 2000만 원 이하·농업법인 3000만 원 이하이며, 융자금 조건은 연이

율 3%에 상환기간은 1년 거쳐 4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융자 대상사업은 전주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소득 사업이나 농촌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기반 사업 및 구조개선 사업이다. 문의(063-281-5069)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민·관 합동 내일 군산 앞바다 쓰레기 대청소

태풍과 집중호우로 폐밀러온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군산 앞바다에서 민·관이 대청소를 실시한다. 군산 지방해양항만청을 비롯해 군산시, 해양환경관리공단, 군산시 수협, 비응도 어촌계, 1사 1연안 가꾸기 업체(20개) 등 기관 직

원과 주민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1일 오후 군산항 비용도 항구 일대에서 대청소에 나선다. 이는 최근 국지성 폭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각종 쓰레기가 비용항내 선박의 입·출항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nogusu@

태풍 통제 '지리산 둘레길' 전 구간 개방

서부지방산림청은 태풍으로 통제됐던 '지리산 둘레길' 전 구간(274km)을 8일 오전 9시부터 개방했다. 지리산둘레길은 이번 태풍으로 수목 700여 그루가 넘어지고 숲길 300m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서부산림청은 탐방객의 통행

에 지장이 없도록 응급복구를 마치고 출입통제 12일만에 개방했다. 탐방객은 지리산둘레길을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홈페이지(trail.or.kr) 또는 안내센터를 방문해 유류구간을 확인해야 한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김제 요촌·신평·검산동 드림스타트센터 개소

‘김제 드림스타트센터’가 최근 김제시 검산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문을 열고 저소득층 가정의 0~12세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 아동복지 프로그램 제공에 나섰다. 드림스타트센터는 요촌·신평·검

산동 3개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218가구 339명이 필요로 하는 부문의 프로그램과 집중적인 사례관리 제공을 하게 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모든 아이가 행복한 김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